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04 승강기 안전 편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CONTENTS

- 01 **SAFETY GRAPHIC**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승강기 현황

- 02 **SAFETY NOW**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는 방법

- 03 **INTERVIEW**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재우 세종지사장

- 04 **SAFETY CHECK**
승강기 사고예방 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 05 **SAFETY MANUAL 01**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기억해주세요.

- 06 **SAFETY MANUAL 02**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기억해주세요.

SAFETY GRAPHIC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승강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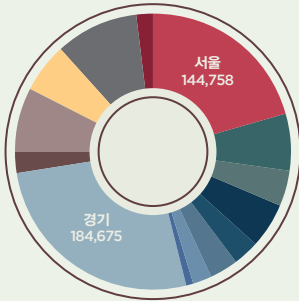
점검과 배려 사이에 놓인 안전지대, 승강기

201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701,956대. 1993년부터 기준일까지 집계된 승강기 사고는 총 1,445건으로 비율로 환산해 보면 0.0163%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 번의 사고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승강기는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관리자의 꾸준한 관리와 점검이 합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꾸준한 점검을 바탕으로 한 관리와 이용자의 배려 사이에 놓인 안전지대가 바로 승강기이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 자료집(2019/2분기)'

지역별 승강기 보유 현황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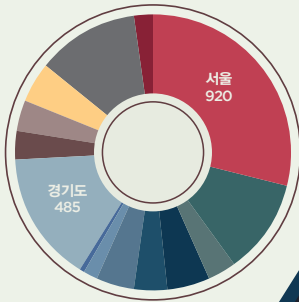
- 서울 144,758
- 부산 46,477
- 대구 30,044
- 인천 37,503
- 광주 21,232
- 대전 22,372
- 울산 16,313
- ★ ● 세종 5,683
- 경기도 184,675
- 강원도 19,092
- 충청도 52,504
- 전라도 39,775
- 경상도 68,723
- 제주도 12,805

세종시
에스컬레이터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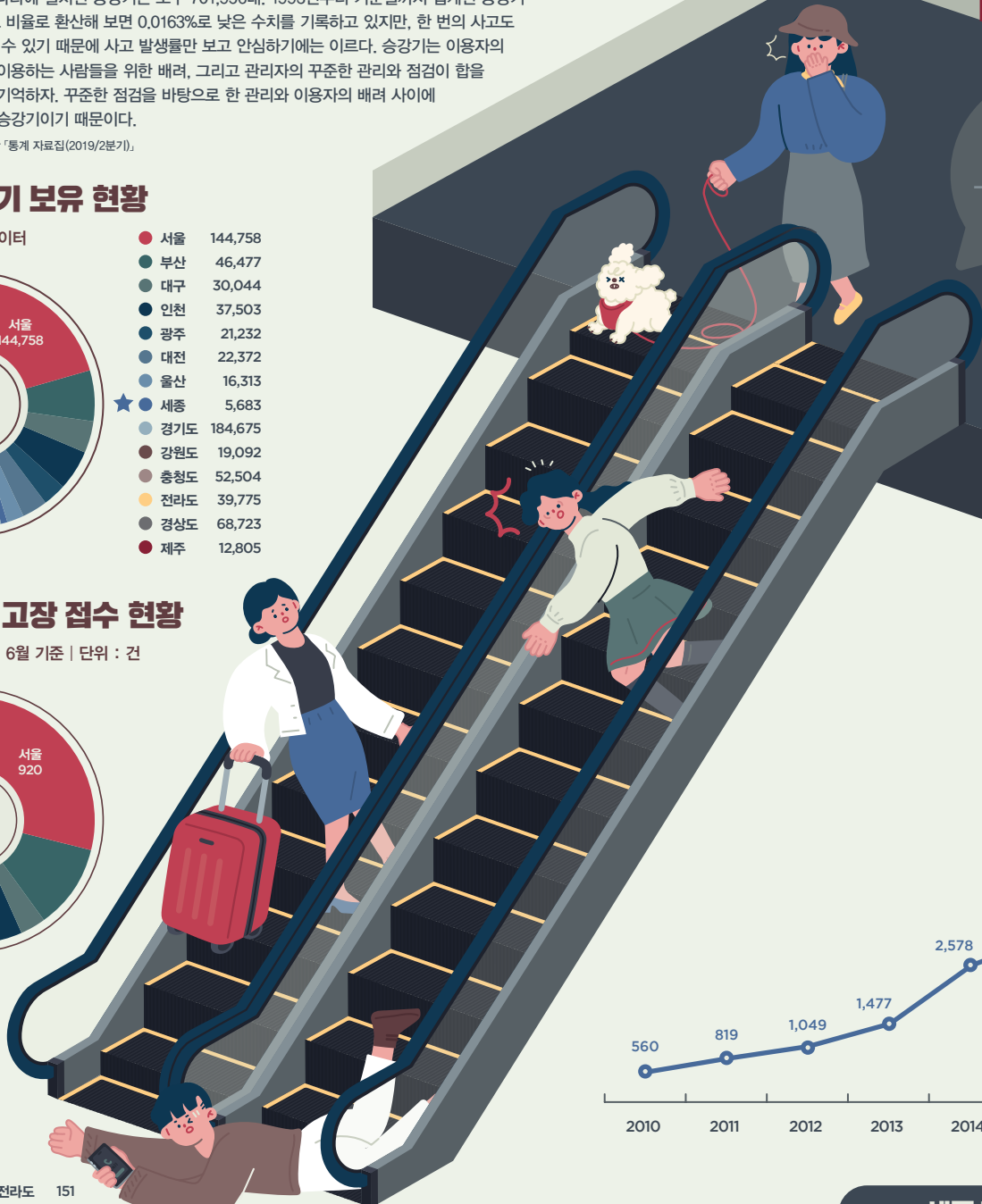
237대

지역별 중대 고장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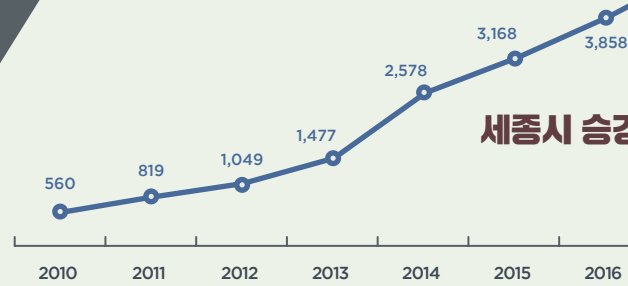
2019년 1월 ~ 2019년 6월 기준 | 단위 : 건



- 서울 920
- 부산 359
- 대구 107
- 인천 157
- 광주 119
- 대전 146
- 울산 50
- ★ ● 세종 16
- 경기도 485
- 강원도 106
- 충청도 115
- 전라도 151
- 경상도 383
- 제주도 65



우리나라



세종시 승강기

세종시의 승강기 사고

세종시 건물 용도별 승강기 보유 현황



공동주택 3,691대



근린생활 720대



판매시설 116대



운수시설 23대



업무시설 405대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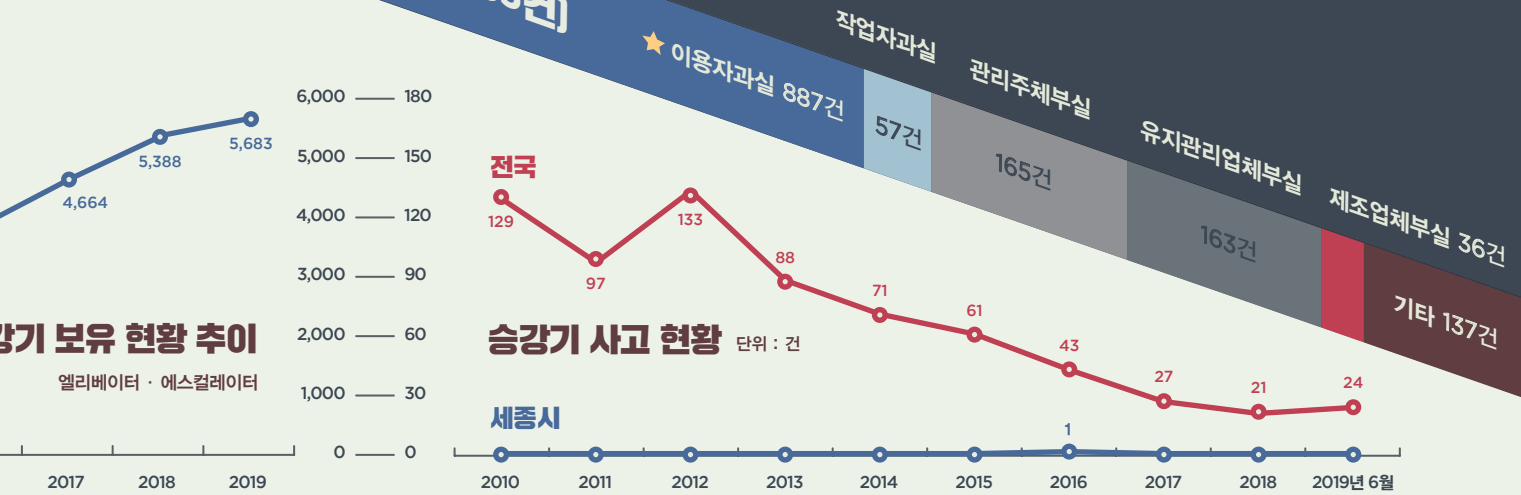
세종시 승객용 엘리베이터 보유 현황

5,269대

세종시 화물용 엘리베이터 보유 현황

160대

승강기 원인별 사고 현황(총 1,455건)



고 건수는 단 1건으로 이를 안전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더 없이 기분 좋은 '1등'이다.



숙박시설 22대



교육복지 396대



문화집회 34대



의료시설 22대



공장 144대



기타 110대

버튼 하나면 지하부터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기억해주세요.

손 대면 '꼭' 하고,
끼일 것만 같은 당신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고 있다가
문과 문 틈새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치고 힘들어도
자리 보고 기대자



승강로 안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가하면 안돼요.

혼밥 OK! 혼술도 OK!
혼자 탈출은 NO!



갑자기 될 경우 탈출하려 하지 말고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한 후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내 '사랑'은
내 품 안에



문이 닫히는 도중 반려견이 밖으로 나가
목줄이 끼일 수 있으니 꼭 안고 타주세요.

고층 건축물이 많은 세종시에서 엘리베이터는 너무도 친숙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지난해 승강기에서 발생한 21건의 사고 중 10건이 이용자 과실*로 일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익숙한 만큼 안전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이 혹시 위험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사고 사례집(2019)」

뒤편 뛰기 실력은 운동장에서 보여주세요



안전장치가 작동해 갑자기 멈추는 등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면 안돼요.

넘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마오



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타거나 내리려고 하면 문에 부딪혀 넘어지기 쉬워요.

길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안전!



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하거나 정격하중을 초과해서 화물을 적재하면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무리해서 탑승하면 안돼요.

'편리'가 '위험'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화재 또는 지진이 발생하여 대피할 땐,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멈추는 즉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이가 많았어?

역사 속에서 찾아 본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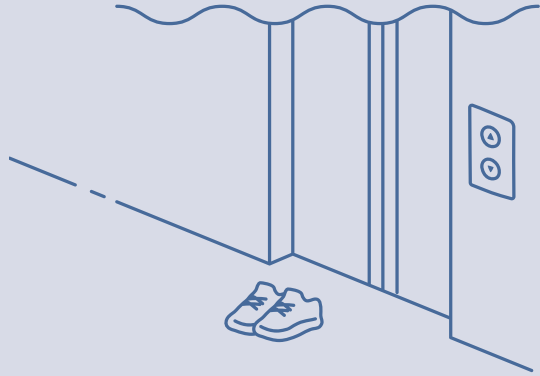
고층 건축물이라면 없는 것이 더 어색한 엘리베이터. 낮은 층수도 일단 타고 보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는 고층 건축물과 함께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최초'와 '최고'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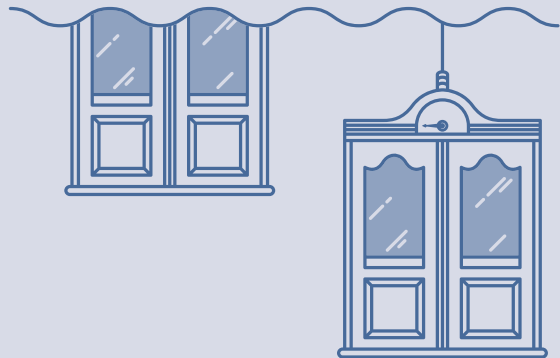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 처음 도입된 승강기는 조선인에게도 물론 일본인에게도 낯설고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탔다는 기록도 있죠. 우리나라 승강기의 '처음'은 어땠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 1910년 ● 조선은행에 한반도 최초로 OTIS사(社)의 수압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 1914년 ● 1914년 조선회관에 수입, 설치된 승강기는 OTIS사(社)로 한반도 최초의 전동식 승강기이다.
- 1926년 ● 조선총독부는 단일 건물로는 가장 많은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이다.
- 1927년 ● 세브란스 병원은 한반도 최초의 민간 발주로 OTIS사(社)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다.
- 1945년 ● 우리나라 최초의 승강기 회사 '서울승강기공업사'가 창업했다.
- 1974년 ● 국내 최초로 유니버스-서통전기 인천주안공장에 승강기 시험탑과 에스컬레이터 생산라인이 구축됐다.
- 1984년 ● 국내 최초로 분속 504m 초고속 승강기가 63빌딩(높이 249m)에 설치됐다.
- 1989년 ● 금성산전이 창원공장에 동양 최고 높이(115m)의 시험탑을 준공했다.
- 1997년 ● 동양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높이인 157m 시험탑을 천안 공장에 건립했다.



세계 최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을까?

- 1835년 ● 영국의 한 공장에서 처음으로 'TEAGLE'이라는 증기기관을 이용해 화물용 승강기를 운행한 것이 동력을 사용한 첫 번째 승강기다.
- 1889년 ● 파리의 에펠탑에 OTIS사(社)가 세계 최초로 경사식 승강기를 설치했다.
- 1940년 ● 남아프리카 국가의 승강행정 964m의 탄광 승강로에 세계 최초로 분속 600m 승강기가 설치됐다.
- 1967년 ● 뉴욕의 세계무역센터(110층)에 세계 최초로 분속 480m 승강기가 설치됐다.
- 1970년 ● 시카고의 타임라이프 빌딩에 세계 최초로 분속 480m 2층 구조 승강기(DOUBLE DECK E/L)이 설치됐다.
- 1993년 ● 세계 최초로 750m 고속 승강기가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에 설치됐다.



서 있기만 해도 알아서 오르내리는 편리함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기억해주세요.

안전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잡으세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기 쉬우니 이용 중 넘어지지 않도록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용 시 손잡이를 꼭 잡아 주세요.

수동주행 NO!
자동주행 YES!



급하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거나 뛰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벗어나면 반드시
다친다!



옷이나 발이 끼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발 밑을 확인하고 노란색 안전선 안에 탑승해 주세요.

사랑하는 만큼 꼭
안아주세요



에스컬레이터는 물론 무빙워크에서도 유아는 품에 안고, 반려동물은 가급적 이동장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고층 건축물부터 지하철, 대형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은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는 않는지, 계단처럼 오르내리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진 않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 아차, 싶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 있기만 해도 알아서 오르내릴 수 있는 편리함을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움직여도 계단은 계단, '바퀴'는 힘들어요



손수레나 유모차,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이동 중에 봐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는 특히 휴대전화에 집중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이동 중에는 사용을 삼가주세요.

비 오는 날이면 뜻밖의 미끄럼틀



비 또는 눈 내리는 날에는 디딤판 또는 신발 바닥의 물기로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니 손잡이를 꼭 잡고 조심해서 이용해요.

불꽃 보다 위험한 연기를 조심하세요



화재 시 에스컬레이터가 연기의 이동 통로가 되기 때문에 질식 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을 삼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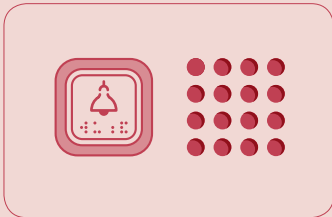
승강기는 TV가 아니다?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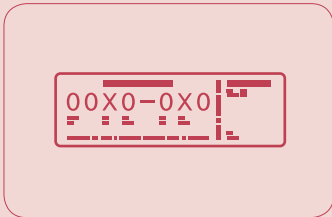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래된 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마구잡이로 두드리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 장면을 보며 웃었던 이유는 두드린다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났거나 비상 상황일 때 함부로 두드리거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안전해지는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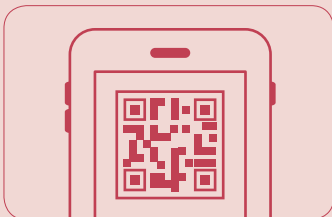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엘리베이터 내부입니다. 혼자서 탈출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추락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침착하게 '버튼'을 누르면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상호출 버튼(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합니다.



인터폰이 안될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합니다. 이때 승강기 번호(7자리)를 알려주면 승강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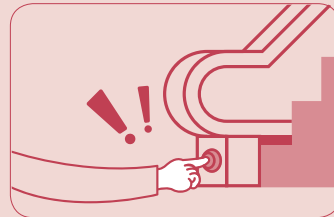


또는 승강기 번호 옆에 있는 QR코드를 인식 후 '고장/사고 제보'를 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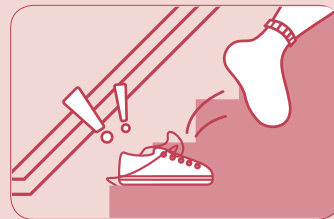
잠깐! 구조 요청 시 동승자 중 심신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동승자의 상태를 알려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상정지 버튼은 '비상' 시에만 눌러요!

에스컬레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 더 당황하게 되고 쉽게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하세요. 직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경우에도 주위에 알려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옷이나 운동화 끈이 끼면 가능한 빨리 벗고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경우에는 재빨리 핸드레일(손잡이)을 잡고 일어나세요.



SAFETY NOW |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는 방법

관리자와 사용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승강기 안전

고층 건축물이 많은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승강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시설인들 안 그럴겠느냐만, 승강기 역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는 관리 지침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올해 9월 현재 엘리베이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각각 51건, 54명(사망 1명·부상 5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승강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2015년 61건·66명, 2016년 44건·45명, 2017년 27건·2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1247건이던 갇힘 사고는 2019년 9월 현재 4821건으로 약 4배 급증했다. 갇힘 사고 중 승객이 1시간 이상 갇혀 있던 73건의 고장을 분석한 결과 부품 이상, 조정 불량, 노후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60건으로 82%를 차지했다. 또 15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21만816대)가 전체(70만7472대)의 30%를 차지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와 안전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지난 5년 간 발생한 125건의 안전사고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전도사고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디딤판 틈새에 옷자락이나 신발이 끼이는 끼임사고가 21건을 차지했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61세 이상 고령자(66건)와 12세 이하 어린이(15건)로 집계됐고 그 외 연령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휴대전화에 집중하다 전도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판매시설에서 88건, 이용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22건으로 나타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방안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사고의 경우 노후화 및 시설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았고,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10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갇힘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2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던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춰 비상벨을 통해 관리업체에 해당 내용이 전달됐지만 관리업체 직원이 도착한 후에도 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무엇보다 단지 내 27대의 엘리베이터에서 1년에 1~2번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반려동물에게 개방하는 대형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 시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끼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견의 발은 작고 털이 많아 에스컬레이터에 끼일 확률이 높은데도 귀엽다는 이유로, 혹은 관심을 거라는 안전불감증으로 방치하다 끼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더라도 관리자가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시설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도,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잘 관리하더라도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는 똑같이 일어난다.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는 길은 안전수칙 준수와 철저한 안전 점검 및 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 아닐까. 익숙한 만큼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안전인만큼 평소 안전한 습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 현황(2015년~2019년)' 자료, 2019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근 5년간 에스컬레이터 사고 현황(2014년~2018년)' 자료, 2019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SAFETY CHECK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2019.3.28)」의 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승강기를 새로 설치했다라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은 날(합격한 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리 | 오후라(오세이프 에디터)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모든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자동차용 포함) 포함)

가입 주체 해당 승강기 관리 주체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유지관리 및 자체 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입 방법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사를 통해 가입(보험료 및 약관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보험료나 혜택 등을 비교). 자세한 내용은 승강기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 확인

Check Point

기존 보험을 적용할 수 있나요?

- 기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 관련 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입력은 누가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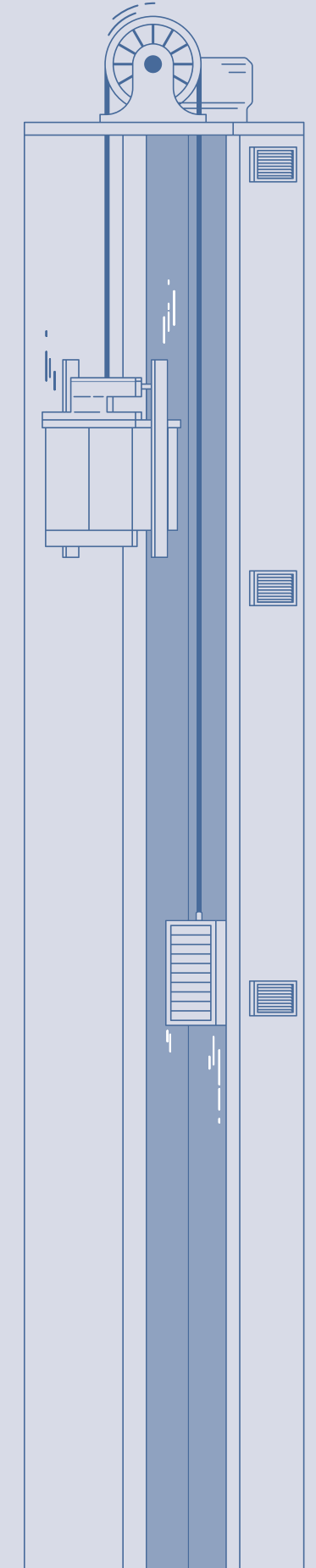
- 보험사(책임보험 판매자)가 승강기 민원24에 직접 입력합니다.
- 보험 가입 사실 입력 여부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접속 후 정보열람/승강기 정보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휴지(운행중지)된 승강기도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모든 승강기(휴지된 승강기 포함)가 가입 대상입니다. 휴지 상태의 승강기라 하더라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의 처분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 라목에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4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INTERVIEW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재우 세종지사장

승강기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

하루에 한 번 이상 이용하게 되는 승강기. 여러분은 안전수칙을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익숙함에 길들여져 위험성을 잊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재우 세종지사장과 안전한 승강기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이하 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지사장 (이하 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는 지난 5월 1일 개소하여 세종시를 포함한 계룡시, 공주시 등 5개 시와 3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최초 설치되었을 때 설치검사와 이후 정기적인 안전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 승강기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 소식도 종종 접하게 되실 텐데,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나요?

김 | 최근 5년간 사고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총 27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 이용자과실이 145건으로 53%를 차지했고, 유지관리업체 부실이 17%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 승강기 사고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유지관리업체의 관리 소홀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사고를 막기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자들의 안전 수칙 같은 게 있다면요?

김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장과 정전으로 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때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엘리베이터 내부라는 사실을 기억해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추락하거나 질식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임의로 탈출을 시도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으로 관리자나 유지관리업체, 119에 구조 요청을 한 다음 낮은 자세로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내부에 환기나 심신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119 구조 요청 시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 신속한 응급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 세종시에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잖아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아이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김 |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 자전거순찰대 같은 협력 단체들과 감동회를 통해 치안 환경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합동 순찰 같은 공동체 치안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순찰에는 한국영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도 참여해 지역사회 전반의 치안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 범죄예방진단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 | 엘리베이터에는 문틀과 문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간혹 호기심에 문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틈새에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는데요. 강제로 빼고자 할 경우 손가락이 다칠

수 있으니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시고요, 열림 버튼을 지속적으로 눌러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썰매를 타기 위해 썰매판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닫힘 안전장치는 끈을 감지하지 못하므로 썰매는 직접 들고 탑승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고 승강장 문 밖에 썰매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끈을 잡고 있는 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도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이 | 요즘 엘리베이터 못지않게 자주 이용하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에스컬레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 |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사고 중 54%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전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80%에 달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때 발은 황색 안전선 안에 두시고요, 건너나 뛰지 말고 고무 손잡이를 잡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 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들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니 아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신발 바닥에 묻어 있는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물기를 제거한 뒤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 만약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김 |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하부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빨간색 정지 스위치를 눌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꼭 유념하실 점이 에스컬레이터가 멈출 때 탑승 중인 이용자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라고 외쳐서 이용자들이 정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정지 스위치를 눌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 사용자도 물론 경각심을 가지고 승강기를 이용해야겠지만, 관리자 역시 안전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면요?

김 | 법에서는 관리자를 관리 주체로 표현합니다. 관리 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또는 책임을 위임 받아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관리 주체는 승강기 검사신청, 승강기 유지관리, 자체 점검 실시, 승강기 중대사고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승강기의 일상관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항 중에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업체에게 위임이 가능하고요, 일상관리에 대한 업무를 안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 안전한 승강기 사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에서는 어떤 교육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에서는 승강기 설치와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종시청의 요청에 따라 승강기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서 나이아가라 노인대학과 세종시 어린이 안전체험축제에서 안전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승강기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2019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시 관리 주체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 승강기를 탈 때 익숙함에 길들여져 그 위험성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종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 | 승강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승강기 고장 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예외는 없습니다. 승강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승강기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탈 일이 많은 요즘, 방심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아이들에게도 세심하게 알려준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취재 |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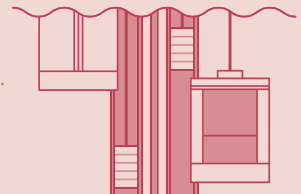
승강기, 이렇게 종류가 많았어? 애도, 재도 다 같은 승강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그 용도 또한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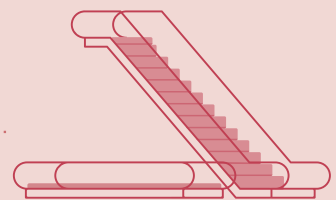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 승객용 · 전망용 · 병원용 · 장애인용 · 소방구조용 · 피난용 · 주택용 · 승객화물용 · 화물용 ·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 승객용 무빙워크 ·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COVER STORY

우리 생활 속 밀접한 이동수단,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보편화된 승강기는 우리 일상 속에서 또 하나의 '발'이 되어주는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성미에는 계단보다는 승강기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요.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승강기 대수는 2만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0만대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승강기의 사용은 보편화된 반면 관련 안전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혹 이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으로 추락하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손이 끼어 절단되는 등의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들의 근본적은 원인으로 보수·점검의 부실과 시민 안전의식 부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보수하면서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접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승강기 이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인해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의 네 번째 이야기, '승강기 안전' 편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속 이동수단인 승강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재미난 승강기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매거진을 통해 한 층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문의 044-300-3613~4

편집위원 심준우 / 유정
에디터 김슬기 / 오호라
취재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디자이너 김수평
검수 김재우(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장)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